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제주선수단이 1일 결단식을 열어 메달 150개 이상·종합 12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1~16일 열려… 제주선수단 어제 결단식

“안방 개최… 메달 150개·종합 12위 목표”

전국에서 9000여명 참가… 31개 종목서 메달 경쟁
제주, 26개 종목·475명 참가… 지난 대회 종합 16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안방체전에서 15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 종합 12위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2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선수단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제주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5명(선수 301명, 임원·관계자 174명)이 종합 12위와 메달 15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26개 종목에 출전한다.

제주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9개 등 총 9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16위에 올랐다.

위성곤 도지사는 “전국 선수들이

제주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경기 운영과 편의시설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익숙한 제주에서 치르는 대회인 만큼 우리 선수단도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주 전역에서 열린다. 제주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9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골볼, 보치아, 소다운, 쉼린, 휠체어럭비 등 31개 종목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 성화는 오는 9일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서 채화한 뒤 10일 도청을 출발해 31개 구간을 170여 명이 이어 봉송하며, 11일 개회식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개회식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6일 오후 4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사전경기에선 경기도가 금 10개 등 24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제주도는 아직까지 획득 메달이 없다.



강원도를 69대 64로 제압한 제주 남자휠체어농구가 2일 서울과 결승전을 갖는다.

제주 휠체어농구 46회 장애인체전 ‘첫 금’ 도전 어제 준결승서 69대 64로 강원도 제압… 오늘 서울과 결승전

제주 남자휠체어농구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선수단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1일 오전 9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휠체어농구 OPEN 4강전에서 맞수 강원특별자치도를 69대64, 5점 차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열린 8강전에서 울산광역시를 89대36으로 대

파했고 강원자치도 역시 대전광역시를 88대29로 꺾으며 치열한 4강 승부가 예상됐었다.

제주는 이날 강원을 상대로 전반을 34-42로 뒤진 채 마쳤지만 3쿼터에서 18-10을 기록하며 52-52 동점을 만든 뒤, 마지막 4쿼터를 17-12로 앞서 최종 69대64의 역전승을 완성했다.

제주 휠체어농구는 2016년 제36회 장애인체전 금메달 이후 10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결승 상대는 서울이다. 결승전은 2일 낮 12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며, 제주선수단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10년 만의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제주는 지난 2024년 제44회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서울에 56대 59로 석패해 은메달에 그친 바 있어 당시 아쉬움을 씻고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싱기구 WBO 세계총회 제주에서 열린다

WBO 아태 부회장, 개최 희망… 2029년 또는 2030년
한국제주권투위원회 12월 대표단 파견해 유치 활동

세계 4대 메이저 프로복싱 기구 중 하나인 세계복싱기구(WBO·World Boxing Organization) 세계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될지 주목된다.

(사)한국제주권투위원회가 최근 ‘2029년 제42회 WBO 세계 총회’ 제주 유치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접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WBO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은 의향서에서 아시아 지역 주요 거점이자 국제적 휴양지인 제주에서 2029년 또는 2030년 WBO 총회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의 의견을 물었다.

WBO는 국제복싱연맹(IBF), 세계복싱협회(WBA), 세계복싱평의회(WBC)와 더불어 4대 프로복싱 공인기구 중 하나로 본부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위치하고 있다.

WBO 세계 총회는 100~120개국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컨벤션이다. 세계적인 복서, 유명

프로모터, 기구 임원진, 글로벌 미디어 및 복싱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복싱 규칙과 규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에게 공식심판·임원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제주권투위원회는 WBO 세계 총회 제주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오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2026 세계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WBO 수뇌부와 협의 후 제주 유치 의향서를 공식 수령하고, 2029년 총회를 유치 목표로 전 세계 복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제주권투위원회 관계자는 “WBO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될 경우 지역 복싱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프로복싱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제28회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제주 선수단, 남자부 5인조 ‘준우승’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회장 홍명규)는 지난달 28~30일 전남 해남군 오두볼링장에서 열린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남자부 5인조 경기에서 제주 선수단(사진)이 2위에 입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볼링 선수들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제주는 이기선 감독의 지도 아래 김동찬, 전승호, 정원영, 김민종, 고재호, 김인성이 남자부 5인조 경기에 출전해 330승, 6142점을 기록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1위는 대전이 350승, 6233점으로 차지했고, 광주가 310승, 6101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제주는 우승팀 대전과 경기 후반까지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는데, 6

명의 선수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제주 선수단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홍명규 회장은 “전국의 우수한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이 남자 5인조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둬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볼링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청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시사기획 창(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딸(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남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배베린(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깡볼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도전 AI 해결단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 영역가 14:10 영어 영역 17:20 남남 하어로 슈퍼잭 18:20 고현민국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10 열린세상 14:50 어린이동화터너(재) 15:20 인생이 영화(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도깨비 연애에 왜 왔니?(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앙상블밤 산(재) 17:00 미라클로니 4 17:15 프린세스 캐처 티니핑 17:30 풀집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스킷 매직카드 13:3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KCTV시청자 세상 17:10 수줍음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나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9:00 KCTV 9시 뉴스 10: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1:30 삼촌 댁집사에게 13:3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KCTV시청자 세상 17:10 수줍음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나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리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망의 딸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봉주르행진 23:10 실림하는 남자들(재)	18:05 애들은 가라 1호집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유유니 컬러(재) 22:20 2026 아시안 게임 X 잇츠라이브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웬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매리는 그녀들 22:50 특별기획 퓨처리포트 1부 에너지와 돈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복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읊주나 차광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달콤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하되 무산되는 일은 피하라.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략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전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기자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리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비란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헤드리먼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급금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91년 의욕이 강하여 무슨 일에도 싫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도 허물이 도사리니 밑바늘이 있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처세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하는 좋은 시기 직장인은 강도 높은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를 소개할 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부부간 시대,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미의 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은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71년 멧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준비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